

재앙의 날을 축복의 날들로 변화시키는 비밀

-복음으로 여는 요엘-

요엘 2:28-32, 사도행전 2:16-21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특권, 천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되고 답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충만하면 영원한 것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 향한 편집, 디자인, 절대계획이 앞당겨 보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쓸 필요 없고 조금해 할 필요도 없으며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는다. 기도를 하면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평안이 온다. 그렇게 되면 응답을 받는 것이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키는 바로 성령충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기적을 다 알고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성령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란다.

오늘은 요엘서에 담겨진 복음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자 한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믿고 체현하고 전하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태어났던 순간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 요엘서의 특징은 그 기록시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소제, 성전,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이 근거이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요엘과 요엘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죄를 알고 있는데 또 지적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 선지자가 구약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의 죄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적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알콜이나 도박중독자들도 내가 중독자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부터 치유는 시작되고,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불순종과 불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세상과 사탄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부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요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신앙과 죄로 인해 그들이 받을 재앙과 징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요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날은 최후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요엘서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응답의 날이 될 것이다. 또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의 하나는 초대교회 마가다랴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야 한다. 그래서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최악의 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요엘은 그 날, 그 때를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들이 불신앙,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재앙, 포로, 속국, 지옥 같은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순종, 복종하고 오직복음, 오직 예수, 오직전도의 삶을 살면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성령이 임하는 날, 복음을 깨닫는 날, 참 평안이 오는 날, 진도가 되는 날, 제자가 일어나는 날, RUTC가 세워지는 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날, 그 때가 올 줄 믿는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그 날’이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개인문제, 가정문제, 인간관계문제, 성격문제, 경제문제, 정신문제, 중독문제 등 오만가지 문제 등이 닥쳐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치료해 주어야 한다. 먼저 요엘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한 사람들과 국가가 받을 재앙을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다. ‘괄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세상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올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2)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밭과 토지도 황무하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되었다. 요엘서 1장 10절을 보겠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3) 가축이 먹을 풀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 요엘서 1장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표준새번역에는 ‘양 떼도 피로워한다’고 말한다.

(4) 전쟁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앞으로 ‘강한 백성’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잇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의 포로, 속국, 노예생활을 하였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요엘서에 기록된 복음과 축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들여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1) 복음 중에 복음은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복음소식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재앙

과 저주,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오직복음의 내용과 의미와 결과를 잘 소화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복음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짐승과 같이 살게 된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만 찢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돌아와야 한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돌아와야 한다. 중독자는 목숨을 걸고 결단한다. 그러나 몇 년 참다가 술 한 잔만 하면 다시 중독자가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목숨을 걸고 결단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생결단해야 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자, 남은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예수)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분, 3분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300명 정도 영접을 시키면 그 중에 30다락방이 열리고 3명의 지교회사명자가 나올 것이다. 이 응답의 첫 주자가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4)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개인화, 진문화,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겠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역사할 때 6가지 도구, 7대 흐름, 나의 CVDIP가 발견되고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다.

(5)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복음,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극진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6)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 끝이다. 그 결과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9절에서 27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을 응답과 축복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 2장 19절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라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썩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과 짐승들까지 복음 가진 우리들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셨는데, 한

국에 오실 때마다 한국이 발전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이 아름답네?’ 생각했다고 한다. 복음가진 여러분과 조상들의 기도 때문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역할을 다 하셨다. 우리가 다시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2장 23절이다. ‘시온의 자녀들아(렘넌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렘넌트와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도록 가장 적당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가끔 오는 장마도 태풍도 다 필요한 것이다. 2장 24절에서 25절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1장 4절에서는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피해를 입은 햇수만큼 다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장 26절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라(천국약속)’ 2장 27절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위드, 임마누엘, 윈리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라(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매일 매일 누리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즉 영어로 ‘forever and ever’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오직예수로 결론 내면 그 날부터 재앙과 저주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축복과 전도의 날로 점차 변하게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재앙과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24시간 바라고 기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태초부터 이미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여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미리 보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성령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되 나의 어떤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3천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응답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